

호남 도·시군 균형발전 소통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 오늘 담당자 소통 간담회 순창 추진사업 공유기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일, 정읍시청에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호남지역(전북, 전남, 광주) 도·시군 균형발전사업 담당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기관으로는 균형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LH, 국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참여하여 정책설명을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균형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 등 주요 시군 균형발

전사업에 대해서 지역 담당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우수지구에 대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전북도에서는 나후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한 순창군 추진사업에 대해 시·군 담당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원주(7.3), 경남 창원(7.13), 충북 오송(8.14)에서 개최한 지역별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서, 호남지역(전북, 전남, 광주)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도 김철모 기획관은 "지역주도 사업을 시군과 협력·발굴하고 균형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국체전 선전 대진 1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전북 선수단 결단식'에서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단기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 제70주년 국군의 날 메시지

'평화의 시대를 향한 담대한 여정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군의 날 경축 오찬'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1일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걸맞은 변화된 군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철저한 응징'을 주문했던 1년 전과 달리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강한 군대'라는 다소 절제된 표현으로 군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군의 날 경축 오찬'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건군 70돌을 기념하는 날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만을 언급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4·27, 5·26, 9·19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강조한 KMPR은 유사 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 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우리

과 비교해 자제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강한 군대가 돼야한다고 역설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방개혁의 개념적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국방개혁을 통한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평화 위한 강한 군대' 군 지향점 제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

군 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참수 작전' 개념이 포함된 KMPR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1년 만에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으니 군 역시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변화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평화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국방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핵 여제를 비롯한 한미의 확장 역제력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것

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다.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군에게 국민은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줄 것"이라며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는 오늘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군의 역사,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시체육회, 전국체전 대비 훈련 시청 직장운동부 격려

전주시체육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밤 흘려 훈련에 매진하는 전주시직장운동부 감독과 선수를 격려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흥봉성 전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이영섭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지난달 27일 지난 여름 111년 만에 최악의 열대야와 폭염 속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전주시직장운동부 감독 및 선수를 격려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를 주 개최지로 한 이번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총 47개 종목 선수 및 임원 30,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전주에서는 13개 경기장에서 10개 종목 5,000여명의 선수들이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예술·사람이 머무는 문화터미널

전북문화관광재단, 이달 초 남원·익산 버스터미널 탈바꿈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10월 초 전북 남원·익산 공용버스터미널을 문화터미널로 탈바꿈하고 본격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1일 재단에 따르면 문화터미널 조성 사업은 예술과 사람이 머무는 문화터미널의 슬로건으로 전북 방문의 첫 관문인 터미널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시설의 복합적 문화공간화로 공간 활용의 가치를 부여하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일상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작했다.

이 곳 터미널이 여유 있게 머무르고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공연, 전시, 교육, 강연, 독서는 물론 주민커뮤니티 활동 등 주민주도형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설계공사를 완료하고 다양한 프로그

램 준비에 한창이다.

이병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주민들이 보다 일상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터미널을 조성했다"며 "문화터미널의 기반을 더욱 확대해 문화터미널이 전북 여행의 첫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터미널 남원·익산은 9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토요일' 행사를 시범 운영했으며 10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터미널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도, 18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는 18일까지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도로정비는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및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약2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긴급보수, 배수시설, 안전시설 정비, 덧씌우기공사, 절개지 정비사업 등 141건을 추진하여 130건을 완료했다.

추계 도로정비는 지방도 및 위임국도 70개 노선 2,154km에 대하여 포장과 보수, 비탈면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주요시설물 정비, 배수로 퇴적토사 준설,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실시한다.

지난 여름 수해피해로 응급복구를 실시했던 시설물을 점검하고 다가올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및 장비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